

# 다같이 참여하자 양돈회관 건립에



정 화 진  
(본회 부회장)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이제 안정기반 위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축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된것은 축산업계 전체로 보나, 양돈업계로 보나 무척 다행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양돈인들이 이 나라의 양돈산업을 안정시키 나가고 또 합리적인 경영과 국제경쟁력을 힘차게 배양해 나가 기 위하여 그 중추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양돈회관을 건립코 자 함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양돈인들은 누구나 그 필요성을 절 감할 줄 믿는다.

돌이켜 보면, 이 나라의 양돈산업은 십수년간의 급성장 기간 중 몇차례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등 지극히 불안정한 과정을 밟 아왔고 그때마다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도산해 온 것이 사실 이다. 경기의 기복만이 아니라 가축의 위생이나 정부의 정책마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온 것이 사실이다.

즉 양돈산업은 우리 경제의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우 여극절을 겪으면서 이제 겨우 안정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 다. 지금까지 양돈생산량은 대부분 전업보다는 부업농가의 손 에 의해 생산되었으나 불안정한 구조적 생산기반과 사양기술, 생산비용, 육질개선 등 경영적 요인등으로 인하여 기회 이익만 을 추구하던 부업양돈은 급격히 줄어지고, 대신 적정규모화와 합리적 경영여건을 갖춘 전업양돈이 대폭 확대되어 수요에 알맞 는 공급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이 전업양돈의 생 산기반이 정착됨으로써 이 나라 양돈산업이 드디어 구조적으로 안정화된 단계에 와 있음은 양돈산업 발전사의 당연한 추이다.

전·기업양돈이 70% 이상의 두수를 보유·생산하는 현실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기왕의 기업양돈들이 현재의 규모를 한도로 해서 유지시키고, 새로이 창조되는 국내외의 시장수요 는 전업양돈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총 생산량의 65% 수준을 담당하고 부업양돈이 15% 수준 이내라지만 우리의 양돈산업은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국내외 여건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으로 생각된다. 즉 기왕의 기업양돈은 양돈산업의 수출창구로 서 종돈개량사업과 가공식품으로 밖으로는 세계와 경쟁하는 선 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안으로는 양돈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 면서 국내수급의 차질을 최대한 보호하는 보호막의 역할을 해 나 감으로써 기업양돈의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 전업 은 국내의 필요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산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안정된 현실에서 볼때 앞으로의 안정여부는 정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기업양돈인 스스로의 노력과 합심 단결여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 안다.

그동안 양돈산업은 정부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으나 사양기술의 고도화와 품종개량에의 강력하고 꾸준한 노력, 합리적 시설의 유지관리, 방역위생의 보편화, 경영능력의 제고등으로 인해 업계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또한 정부는 나름대로 많은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양돈 통계자료의 정확성, 관측제도의 발전등 중장기적 안목에서의 양돈방향 전망등 발전 방향을 제시해 앞으로 업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는 민관협조체제의 강화로 협회의 자율적 기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정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 즉,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부업주도에서 전업주도로 나가는 시점에서 우리 양돈산업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양돈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이며 전기업양돈인은 주인으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양돈회관 건립은 약 5~6억원의 자금으로 건립하되 양돈인의 자금에 의해 주식형태로 하며 최고 5천만원을 투자한도로 하여 짓는다고 하니, 명실공히 양돈인의 자금에 의한 양돈인의 회관이 양돈산업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어지는 명분과 실리가 함께 하는 듯하여 투자의 가치와 보람이 함께 있음직스러워 여간 반갑지가 않다.

양돈산업의 앞날이 현재의 전기업양돈인의 손과 판단에 따라 운명지워질 현 단계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큰 시야에서 상호 협조해서 양돈산업을 계속적으로 안정시켜 나가야 할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지고 주인의식과 사회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질때 우리 양돈회관이 빠른 시일내에 건립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효율적 생산활동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하나의 힘이 없지만 전체가 하나가 되어 노력할때 누구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행동을 묵살하지 못할뿐 아니라 중요산업의 주역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체 양돈인의 의지를 집결하고 안정기반을 계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 사업인 양돈회관 건립을 위한 주식청약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

이미 많은 양돈인의 참여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부산·경남지역의 청약대회에서 참석 회원 전원이 적극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양돈문제는 우리 양돈인의 힘으로” 라는 그 정신 하나만 있다면 우리의 양돈산업은 항구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실증을 부산대회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제 우리는 안으로 협조단결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연구해야만 개방시대의 냉엄한 국제환경에서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양돈인이여!

이제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주인은 명실공히 우리 스스로이며 앞으로의 양돈산업의 안정여부도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주식회사양돈회관 건립에 다같이 참여하여 지금 내가 양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의 보람과 앞날의 양돈산업의 책임자로서의 높은 긍지를 보이자.\*